

# “외연확장 통한 새로운 미래로 도약”

전주문화재단, 문화관광사업 추진·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발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9일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화관광사업 추진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등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2024년 주요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본 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의지가 그것이다.  
이 자리에서 백옥선 대표이사는 ‘예술로 상상하고 문화로 행복한 전주’라는 비전 아래 기존 시민의 문화향유와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외에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과 예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등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전주문화재단은 19일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화관광사업 추진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등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2024년 주요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조적 힘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예술가를 위한 폭넓은 지원으로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전주예술가지원사업, 시민의 생태적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예술인의 생태적 문화예술 활동 정책마련을 위한 2024 그린리네상스 프로젝트-예술로GREEN전주, 전주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와 시민의 인문·예술적 소양을 지원하는 팔복예술대학, 오디오북 콘텐츠 확충으로 지역작가와 문화작품의 디지털 독시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오디오북 제작지원, 지역 예술가에게 새로운 장르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탄소산업과 연계하여 탄소예술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할 탄소예술 프로젝트 등을 운영한다.  
또한 인성과 존중의 문화정책으로 화합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여건을 마련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확산을 위해 자생적인 동네 생활문화공간 발굴하고 지원하는 우리동네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시각 예술가의 지역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타 지역 예술계 진출 기회를 확대해 창작활동의 동력을 강화하는 시각예술 국제교류사업, 지역문

화자원을 연계한 공연형 실험예술교육 개발과 해외 예술교육 기관과의 콘텐츠 공동개발을 위한 예술인의 교류를 지원하는 전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을 운영하며, 신규사업으로 지역의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실무형 교육 등 성장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청년문화기획자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운영이다.  
재단은 올해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해 전주시와 함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주형 연수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사업, 코리아 대표축제 연계상품 개발을 위한 3개 사업, 광역투어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2개 사업, 공경관광 및 마을관광 공동체 육성을 위한 2개 사업, 전주형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 민관협력체계 육성을 위한 1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 사업으로는 세계거리축제 ‘전주예술난장’,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팝아트 특별전시: Oh~ my 앤디워홀展, 아시아 스트리트 보드 챌린지, 인문학과 함께 떠나는 미술관 여행, 예술가와 떠나는 생태관광, 세계무형

## 한국전통문화전당-광주디자인진흥원, 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지난 1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진흥원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과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문화예술과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디자인 및

전통문화분야 연구개발 및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공유 △각 기관 사업의 상호 홍보 및 마케팅 협조 등이다.  
한편 이번 협약의 첫 후속조치로 양 기관은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공예 박람회인 ‘빛고을랜드메이드페어’에 지역의 우수한 전통공예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양 기관이 그 간 집대성한 한국 전통문화와 공예산업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상 속 공예문화 가치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전주씨네투어X마중 프로그램 공개

전주국제영화제, 바로엔터테인먼트 대표 9인 배우 참석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전주씨네투어X마중’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씨네투어’는 전주국제영화제가 관광거점도시 전주시와 함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중 ‘전주씨네투어X마중’은 독립영화계 산실인 전주국제영화제가 독립영화 배우들과 관광객,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매해 독립영화를 비롯해 한국 영화계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와 주목받은 신인 배우가 속해있는 소속사를 선정해, 해당 소속사의 배우들과 관객이 전주에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전주씨네투어X마중은 ‘바로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한다. 바로엔터테인먼트는 ‘혼자 사는 사람들’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부문 배우상을 수상하고,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한국 단편경쟁 심사위원으로, 또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개막식 사회자를 맡으며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 공승연의 소속사로, 공승연은 올해도 전주국제영화제와 만남을 가진다.  
여기에, 탄탄한 연기력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아오며 지난해 공승연과 함께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를 맡은 바 있는 배우 진구, 최근 다양한 독립영화를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인정받은 배우 이유미



상단 왼쪽부터 배우 공승연, 김상훈, 박문아, 방효린, 변우석, 이수경, 이유미, 이홍내, 진구와 방효린,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배우 이수경, 이홍내, 변우석을 비롯해, 앞으로 연기 활동이 기대되는 배우 박문아, 김상훈까지 주목할 만한 배우들이 대거 포진돼 눈길을 끈다.  
한편 바로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9인의 배우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정읍 연지아트홀, 27일 아동극 ‘판타스틱 뮤지엄’ 공연

정읍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연지아트홀에서 2024년 문화가 있는 날 아동극 ‘판타스틱 뮤지엄’ 공연을 무료로 개최한다.  
포스댄스컴퍼니의 ‘판타스틱 뮤지엄’은 경비원 박 씨의 판타지 박물관 체험기를 담은 댄스 뮤지컬로, 우연히 박물관 공연을 관람하게 된

주인공 박 씨가 박물관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를 무용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공연시작 30분 전에 선착순 무료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북대, 문화재 돌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진행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북서부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가 문화재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돌봄 종사자들은 원형 유지와 최소 간섭의 원칙을 근거로 우리 지역 문화재를 돌보며 경미한 수리를 하는 데 필요한 미장, 번외, 조경 등의 교육에 참여했다.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종사자가 멘토가 돼 동료 직원들의 교육을 지원했다.



남해경 센터장은 “문화재의 일상적인 관리와 훼손 방지에 힘쓰고 있다”며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더 많은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관풍각

#### 내아